



지난해 부안 마실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복줄을 잡아라 마실 당산놀이'. 신랑용줄과 신부용줄로 된 복줄(용줄)을 서로 매면서 한해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부안군 제공>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제3회 마실축제 내달 1~3일 전국 최초 소도읍 거리형축제 동춘서커스 등 오감만족 행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안 마실축제'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부안군 전역에서 전국 최초 소도읍(小都邑) 거리형 축제로 개최된다.

1~2회 마실축제는 부안 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열렸지만 민선 6기 들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부안읍을 주무대로 삼아 군 전역에서 열린다.

올해 마실축제의 특징은 부안지역의 특색을 살린 '오감(五感) 프로그램'과 부안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오복(五福)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우선 오감 프로그램은 해안자원을 활용한 해풍속 1박2일 캠프와 갯벌체험을 운영하게 된다. 또 졸포만 갯벌생태공원에

선 힐링(치유)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동진면 일원에서 한창 수확하고 있는 동진감자를 소재로 감자캐기 체험이 운영된다. 부안출신 지포 김구 선생과 이매창, 신석정 시인 등을 알아보는 인문학 여행도 마련된다.

또한 오복 프로그램으로는 부안을 서부 터미널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거리 ▲체험의 거리 ▲글로벌의 거리 ▲빛과 물의 거리 ▲시장의 거리 등 다섯가지 색깔의 테마거리를 운영할 계획이다.

'빛과 소금의 거리'에서는 부안의 특산물인 소금과 청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질 계획이다. '체험의 거리'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의 거리'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체험과 공연이 있을 예정이며,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차이나 미니 페스티벌도 기대된다. '빛과 물의 거리'에서는 마실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슈퍼히어로 물총

세계대전'이 펼쳐진다. 부안 참봉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틱탄 대항으로 치러진다. '시장의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춘서커스 공원과 부안 오디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오디엑스포 등 다양한 전시 판매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올 마실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마실 페어데이 ▲마실문화놀이 ▲위도파벳놀이 재현행사 ▲슈퍼히어로 물총 세계대전 ▲강강술래로 관광객과 군민이 하나 되는 대동환마당 등이다.

'마실 페어데이'는 강릉의 북(바람), 풍류의 북(핑크), 재물의 북(노랑), 휴식의 북(녹색), 자금의 북(빨강) 등 오복을 상징하는 페어데이를 운영하게 된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위도 파벳놀이 재현행사는 '위도'라는 섬에서 이뤄지던 행사를 육지로 끌어내 관광객이 있는 곳에서 파베를 바다에 띄워 보내는 장면을 연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마실축제가 설립에 참여한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속악회 시나위 연주단과 향사 박귀희 선생을 기념해

창단된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농협 완도군지부 슬로걷기축제 관광객 환영행사

NH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김정오)는 지난 11일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을 펼쳤다.

완도군지부 직원 20여명은 '명사와 함께 슬로걷기 걷기' 행사장 길목에서 생수와 관내에서 생산된 방울토마토, 떡을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줘 호응을 얻었다. <사진>

직원들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와 '지역민과 함께하는 농협'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농업의 소중함을 알렸다.

김정오 지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해 더욱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국내외 바이오전문가 1500명 여수에 몰려온다

17~19일 국제 심포지엄

2015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이 17~19일 사흘간 여수엑스포장에서 개최된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후원하고 한국생물공학회(회장 최정)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와 함께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를 기념하고, 전라남도여수시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전남도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최신 생물공학의 동향에 관한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춘계 학술 발표대회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권위자들이 참석해 해양 바이오 박람회와 함께 전남의 10대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해양수산 바이오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분야 세계적 권위자와 바이오기업 CEO 등 1500여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산업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완도군의 해양바이오 연구원을 포함한 산하 7개 바이오연구원의 지역 기반 연구개발(R&D) 및 중소기업 지원에 강화해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컨텐츠 대중화 강연을 비롯해 생물공학의 미래(이상엽 KAIST 교수) 등의 다양한 주제 강연이 열릴 예정이다.

고창 출신 만정 김소희 명창 추모공연... 17일 동리국악당

고창출신 만정 김소희(1917~1995년) 명창의 예술혼을 기리는 추모공연이 17일 오후 3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열린다.

고창군 주희, (사)동리문화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공연은 서거 20주기 기념식이 이어 아찬 김영철 선생의 작품 만정 영정 봉안식이 전통다례와 함께 집행된다.

추모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

자 성창순·송순섭·이생강·남해성·김정만·이예주 명인과 사물놀이 이광수·최종실 명인, 신영희·안숙선·박윤초·이명희·한정아·김미숙 등 직계 제자들과 최우철·장종민·한선화 명인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만정선생이 설립에 참여한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민속악회 시나위 연주단과 향사 박귀희 선생을 기념해

창단된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향사무용단이 특별출연해 만정의 기리는 헌무를 올릴 예정이다.

판소리, 무용, 가악, 서예 등 예술 전반에 능했던 김소희 명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교육기관인 국악 예술학교와 국악협회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의 기예는 보유자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다. <고창=고충식기자 ghs@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모빌 화순군 도곡면 대지 1671㎡(505) 건평 1010㎡(305) 4억 5천
- 사할, 기도원, 요양시설 적합 보성군 문덕면 땅 2092㎡(633) 건평 874㎡(264) 은행 1억선 매도 1억 7천
- 레스토랑, 카페숍, 산수오거리에서 20분, 광주호에서 5분거리 영일빌 대지1054㎡(319), 건평473㎡(143), 은행 2억3천 교환가능 5억7천
- 유동 로타리 인근 4차선 도로 상업지 대지 335㎡(101) 건평 601㎡(185) 공시지가 3억9천 은행 2억2천 매도 4억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원룸 22개와 투룸 8개 건물 대지 497㎡(150) 건평 1490㎡(451) 은행 5억천 보증금 1억3천신 월 500천 수익 7억7천
- 서구 치평동 유흥업 중심건물 대지 746㎡(226)건물 4617㎡(1397) 은행 30억 보증금 4억6천 월 4600 선수익 매도 63억
- 영인군 월출산 관광지사설치구 대지 1026㎡(310) 건물 2085㎡(630) 민박·식당·매점 등의 시설 은행 8억5천 매도가격은 협의임, 전회요양

투자·매도·교환

- 조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 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인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펜션 빌딩 등 적합, 나주시 산포면 790㎡(234) 1억
- 진도군 고군면 백파리산 16860㎡(5100) 2천 5백만원
- 신안군 중도면 솔로스테이에 있는 집중지 2248㎡(740) 3억 3천에 매입했던 물건임, 은행 1억6천 매도 2억4천
- 관산구 송정동 상업지 1117㎡(338) 전세92천 월 210 건물신축에 적합 12억
- 물류창고·공장 적합 관산구 상가동 33000㎡(10000) 26억
- 물류창고·공장 적합 관산구 상가동 대지236㎡(71) 건물732㎡(2221) 60실